

고리사채 갈아탈수 있다

정부 1조원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연말 시행 대부업체 이용자 제도권 환승...연체 채권 매입 저소득층에 200억원 규모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이번 달부터 고리채에 신용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을 고려하는 등 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대부업체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환승을 지원하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금융 소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하고 늦어도 연말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공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가 금융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여금(약 4조원) 중 국책은행 배분금(2천5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민간 금융회사 배분금(7천500억원)의 기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업에선 신용회복기금의 규모가 1조원 수준에서 출발해 운용과정에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참여업체로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금융 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채권 중 채권가격이 싸고 대부업체도 매각의사가 있는 6개월 이상 부실채권을 신용회복기금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자

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갖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자는 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에는 128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어서 연체채권 매입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소액서민금융재단(휴먼예금관리재단)은 올해 하반기에 휴먼예금을 이용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에게 200억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하반기 시범사업 지원규모를 200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지원대상 복지사업자로 신나는조합(3억원), 사회연대은행(25억원), 신용회복위원회(60억원), 한마음금융(60억원), 근로복지공단(32억원), 실업극복재단(20억원) 등 6곳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삼성 지펠 '수분 케어' 효과?



올들어 매출 급성장... 시장점유율 55% 1위 올라

삼성전자 지펠(사진)이 냉장실과 냉동실을 개별 냉각하는 '독립냉각'에 이어 '수분케어'라는 또 하나의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지펠은 기존 냉장고의 낮은 습도와 건조문제를 개선한 '수분케어' 기술을 앞세워 올해 1~5월 누적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달성했다.

소비자 시장조사기관 GfK코리아가 집계한 1~5월 양면형 냉장고 판매량은 지펠이 567.18만대로 동결되지만 8월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54.5%에 육박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펠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수분케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린 '수분 캠페인'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분케어' 기술은 냉장실내 수분을 보충해 냉장실 습도를 74% 이상으로 유지, 식품을 2~3배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한 기술이다.

기존 냉장고에서 이틀이면 시들던 시금치가 '수분케어' 기술이 적용된 냉장고 속에서는 수분함유량을 90% 이상 유지하며 최대 6일까지 싱싱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이투데이기자 jilee@kwangju.co.kr

상반기 증시 109조 증발

고유가·글로벌 경제 강타 시총 급감

글로벌 경제에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악재가 강타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상반기에 시가총액이 109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증시 결산'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시가총액은 작년말(12월 28일 폐장일 기준) 1천51조7천632억원에서 27일 현재 941조9천919억원으로 109조7천713억원(10.44%) 급감했다.

유가증권시장은 951조8천874억원에서 855조5천131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99조5천758억원에서 86조4천78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코스피지수는 연말 1,897.13에서 27일 현재 1,684.45로 11.21%, 코스닥지수는 704.23에서 594.63으로 15.56%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기전자(8.0%), 의료장비(12.62%) 등 IT 관련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증권(-33.92%), 건설(-26.71%), 비금속광물(-20.65%) 등의 악재가 두드러졌다. 코스닥시장도 방송서비스(5.48%)와 기계·장비(0.49%)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 /연합뉴스

올 수출 4천억달러 무난

코트라 전망... 작년보다 13% 증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 속에서도 한국의 올해 수출은 4천억 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올해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어난 2천190억 달러에 달해 연말 기준으로는 15.5% 증가한 4천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난달 30일 전망했다.

이는 2006년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은 지 2년 만에 4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등 주요시장 경기위축으로 수출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주력품목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올해 대중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점유할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은 경기 위축으로 각각 505억 달러와 687억 달러에 그치고 일본은 299억 달러, 대만 등 중화권은 1천320억 달러, 중남미는 30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10~20% 늘 것으로 보인다.

수출 호조세는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설비 및 부품소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신용시장의 폭발적 수요에 따라 기계류,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선박류, 반도체 등에서 호조가 예상되며 해외생산 증가로 직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자동차, 섬유류, 컴퓨터, 가전, 문선 통신기기, 평판 디스플레이는 소폭 감소하거나 현상유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LPG 가격 이달에 또 오른다

8월엔 도시가스값도 인상... 하반기 물가 비상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이 6월에 이어 7월에 또 올랐다.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8월 인상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 등 가스업체는 1일부터 LPG공급가격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구체적인 인상폭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각 충전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LPG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인 사우디 아랍코사의 6월 LPG 기간계약가격(CP)이 t당

부탄가스는 920달러로, 프로판가스는 895달러로 결정되는 등 지난 5월에 견줘 t당 부탄가스는 60달러, 프로판가스는 50달러가 올라 국내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들 수입업체는 6월에도 LPG공급가격을 크게 올렸었다.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kg당 1천253원으로 140원(12.6%), 부탄가스는 kg당 1천618원으로 137원(9.2%) 인상됐었고 E1은 프로판가스는 138원(12.4%) 오른 kg당 1천251원으로, 부탄가스는 134원(9.1%)

오른 kg당 1천1616원으로 공급가격을 올렸다.

또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환율을 반영해 홀수 달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료비 연동제 지침상 2개월 주기가 아니라도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인상이냐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에는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이 m당 567.18원으로 동결되지만 8월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원자재값 급등... 제조업 체감경기 급랭

韓銀 3천개사 조사... 6월중 채산성 10년만에 최악

석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며 특히 채산성에 대한 체감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천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0일 내놓은 '6월 기업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지수(BSD)는 77로 전월의 85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6년 8월의 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황 BSI는 지난 2월 82에서 3월 84, 4월 87로 올라갔다가 5월에는 85로 떨어지던 데 이어 6월에는 70대로 내려왔다. 업

황 BSI가 100미만이면 실적이 나빠졌다는 기업을 좋아했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이다.

특히 대기업은 100에서 87로, 수출기업은 95에서 82로 각각 13포인트 급락했다. 중소기업은 77에서 71로, 내수기업은 79에서 73로 각각 6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의 채산성 BSI는 6월에 68로 전월의 76에 비해 8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98년 3.4분기의 53 이후 가장 낮다. 한은은 BSI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하다 2003년부터 월 단위로 전환했다고 설

명했다.

수출기업의 채산성 BSI는 83에서 72로 11포인트, 내수기업 채산성 BSI는 72에서 65로 7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제조업의 매출 BSI는 109에서 108로 1포인트, 자금사정 BSI는 83에서 81로 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내수판매 BSI는 2포인트 내려간 100, 가동률 BSI는 4포인트 떨어진 9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조업체를 가운데 경영여로 사함으로써 원자재가격 상승을 겪은 업체는 50.6%로 전월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내수수입은 1.6% 포인트 떨어진 10.5%, 환율요인은 3.4%포인트 내려간 10.1%이었다. /연합뉴스

외제차 증가... 고가차 등장 '고액 보험금' 지급 늘었다

대물담보 가입금액도 덩달아 높아져

외제차 증가 등 자동차의 고가화·대형화에 따라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 사고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를 내 타인에게 입힌 물적손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담보 가입금액도 점차 고액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험개발원(원장 정재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대물배상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3년간 대물사고 건수는 평균 8.7% 증가했으나 보험금이 50만원 미만인 사고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4.9%(2005 회계연도 11억8천615만3천건→2007 회계연도 13억478만건)가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1천만원 이상인 사고는 20.6%(348만1천건→506만1천건)나 늘었다.

또 500만원 미만인 사고는 13.7%, 1천만원 미만인 사고는 19.3%

각각 늘어 모두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물론 전체 건수에서는 여전히 50만원 미만 사고가 가장 많지만 구성비는 2005 회계연도 61.7%에서 2007 회계연도 57.4%로 낮아지는 추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기준이나 약관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이처럼 고액 보험금 사고가 증가한 것은 차량의 고액화 영향을 클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값이나 정비공임 인상 등 물가상승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내 남의 차량을 수리해야 할 때 적용되는 대물담보 가입금액도 고액화하는 경향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2006년 3월 말에는 2천만~3천만원이 46.9%(2005 회계연도 11억8천615만3천건→2007 회계연도 13억478만건)가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1천만원 이상인 사고는 20.6%(348만1천건→506만1천건)나 늘었다.

또 500만원 미만인 사고는 13.7%, 1천만원 미만인 사고는 19.3%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우양물산	[경리직/생산직]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1	062-603-0061
ING생명(본사)	[본사직영/상담원]연급,추가연계출사:35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2-3452-2612
드르벨	금형제품 도면(2D,3D)업무 시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62-710-1202
신영하이테크	생산 관리 및 CMM 측정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3	062-949-8800
한진기공	[기계설계직/NC밀링기사/관리직]정규직	고졸/경력1년	2200~2400	07/04	062-953-1642
롯데유유	롯데유유 광주지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7/04	062-571-7003
히마시네마	회계사무 (더존 사용, 결산가능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7/04	062-261-5398
메트라이프생명	2008년 하반기 경력직 FSR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4	062-228-1137
수성종합건설	현장 근무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3800~4000	07/04	010-9036-4634
신우산업	건축기계설비,환경,공조/공무/건축 경력직	대졸/경력2년	2800~3000	07/06	062-972-1865
동부회계 광주 고객센터	동부회계 직영 TC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220-8500
GM대우자동차(남부영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53-5828
국제이엔티	전기, 전자, 2차전지(연속전지)를 생산, 연구개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73-5993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

전통주 주세 50% 낮춘다

오늘부터 탁주 2.5%·청주 15%로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탁주·약주·청주 등에 붙는 주세가 이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법개정에 따라 1일부터 전통주 주세에 50%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종별 주세는 ▲탁주 5%→2.5% ▲약주·청주 30%→15% ▲증류주·리큐르(Liqueur)주 72%→36% 등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주세인하를 계기로 전통주 육성에 본격 나서 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통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현재 탁주·약주에만 적용되는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한다.

외교통상부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제외공민 및 기업정보 선물에 전통주를 활용하고, 전통주 명인 휴게차 양성 등을 위한 '명인 전수교육장' 건립도 추진한다. 또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만큼,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올해 10월 열리는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기간에도 전통주 제조와 시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